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계시와 성경, 16차, 특별 계시, 성경, 영감에 대한 일곱 가지 견해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계시록과 성경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6, 특별 계시, 성경, 영감에 대한 일곱 가지 견해입니다.

일반 및 특별 계시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교리에 대한 지속적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주제이고, 이 과정의 마지막인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께서 옛날의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말씀을 내어 주셔서 우리가 당신을 알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섬기고, 당신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의 체계적 신학을 특별 계시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세부적으로 위대한 영감의 본문인 다섯 가지 선택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2장에서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을 쓸 때 성령으로 썼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시편 82편을 인용하시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성경은 깨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감에 대한 위대한 디모데후서 3장을 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16~21까지 봤는데, 변형의 이야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의 처음 여덟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옛세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그들만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고,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으며, 그의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리고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신다면, 여기에 천막을 세 개 만들겠습니다. 오, 하나는 당신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모세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한 것입니다. 그는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보라, 밝은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두려워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을 만지며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베드로후서 1:16~21.

문맥상,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죄를 피할 수 있도록 그의 말씀의 약속을 주신 방법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4. 그는 5~7절에서 독자들에게 경건한 미덕을 장려합니다. 이러한 미덕은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를 염두에 두고 연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기 위해 경건함을 추구하라고 격려합니다.

10절,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하라. 물론, 그것들은 하나님께는 확실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세상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며 그러한 자질을 생산하시는 것을 볼 때 확신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세 번째 확신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로 그의 말씀으로, 또한 그의 영으로 우리 마음 속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의 자질들을 나열할 때 언급한 확신의 세 번째
 근거입니다.

죽음이 다가오자,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사도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을 상기시키고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기록된 기록을
 제공합니다. 베드로후서 1:12~15. 그러므로 나는 항상 이러한 자질들을
 상기시키고 다시 말하려고 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그것들을 알고 있고
 여러분이 가진 진리에 굳건히 서 있지만 말입니다.

내가 육신에 있는 동안은 생각나게 하여 너희를 일깨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노니 내 몸을 벗는 일이 곧 있을 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분명히 알려 주신 바와 같으니 내가 떠난 후에 너희가 언제든지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리니 특히 이 구절들, 베드로후서
 1:16-21, 특히 20절과 21절은 성경의 영감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1:16.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임재를 여러분에게 알릴 때
 교묘하게 고안된 신화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의 위엄을 직접
 목격하였음이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고 위엄
 있는 영광으로 그에게 음성이 전해졌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우리는 하늘로부터 난 이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산에서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더욱 확증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과 같이
 주의해서 듣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새벽이 밝아 지고 아침 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의 어떤 예언도
 누군가의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언은 결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말한 것이니라. 21. 그러나 거짓 선지자도 백성 가운데 일어났나니 너희 가운데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이 위대한 영감의 본문의 직접적인 맥락은 디모데후서 3:16과 17과 비슷한데, 거짓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성경과 그 설명을 거짓 가르침의 독에 대한 해독제로 의도하신다는 암시는 도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다른 사도들이 예수를 증거할 때 교묘하게 신화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확인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리스도의 변형에서 그분의 신성한 위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장엄한 영광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렸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하자면 , 아버지가 , 실례합니다,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내가 그를 기뻐합니다, 17절에서 선언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두 동료 제자는 변형 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18절.

다음으로 베드로는 신뢰할 수 있는 구약의 예언적 말씀에 대해 말합니다. 문맥은 다시 마태복음 17장에서 우리에게 상기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인자가 그의 왕국에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즉시 변형 이야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른 출처들 중에서, Darrell Bock은 그의 훌륭한 책인 4복음서에서 예수의 초상화로서 변형이 예수가 재림할 때 가져올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의도된 것 같다고 올바르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 있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오는 것을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변형 사건에서 그것을 미리 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약의 예언적 말씀에 대해 말합니다. 20절, 성경의 예언은 나오지 않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언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신뢰할 수 있는 구약의 예언적 말씀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동의되지만, 18절의 견해는 동의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길,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더 온전히 확증했습니다, 19절. 변형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빛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더 온전히 확증했습니다.

세 가지 견해. 첫째, 예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변형 경험에 의해 강력하게 확증됩니다. 이는 마태복음 17장에 들어맞으며, 16장의 마지막 구절에 이릅니다.

그것은 분명히 두 번째에 계시된 예수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것이었고, 두 번째 오심에 계시될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 저는 이 관점에 기울어져 있지만, 마태복음의 맥락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 관점에 대해 스스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 신자들은 변형 경험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놀라운 일이고 의심할 여지 없이 사도들의 믿음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과 칼빈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더 최근에, 또 다른 번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기 3,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문법적으로나 구문적으로 가능합니다.

형용사 confirmed 또는 reliable NIV는 최상급으로 사용되는 비교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번역은 구약성경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견해를 따르지 않습니다. 합의는 첫 번째이며, 사실입니다.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을 다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변형 이야기는 분명 사도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1세기 유대인 기독교인인 베드로는 구약을 자신의 경험보다 더 높은 권위로 여겼습니다.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19절.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는 구약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매우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성경에 주의 깊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고합니다. 그는 어두운 방에서 빛이 나는 램프의 비유를 사용하여 성경이 가이드로서 매우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여러분에게 알렸을 때, 우리는 교묘하게 신성한 신화를 따르지 않았지만, 우리는 목격자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변형산에 있었고, 보고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의 음성, 목욕탄, 음성의 딸, 하늘에서 온 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18절. 우리는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산에서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더 충분히 확증하거나 더 신뢰할 수 있는 말씀, 또는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ESV는 첫 번째 관점을 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더욱 충분히 확증했고, 여기에 비유가 나오는데,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비유와 은유는 비슷합니다.

은유는 더 많은 방정식입니다. 기본 가이드는 완벽하지 않지만 비유는 종종 like나 as를 사용합니다. 여기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다시 말하지만, 문맥상 예언적인 단어입니다. 변형은 마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당신은 예언적인 단어와 물론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등불과 같은 전체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죄악에 빠져 있으며,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세상은 절박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절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불과 같은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새벽이 밝을 때까지.

이것이 종말론의 언어, 그리스도의 재림의 언어이며, 그 모든 의미입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아침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 재림 사업은 전적으로 내면에 있습니다. 당신이 돌아올 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개인적이고, 눈에 보이고, 첫 번째 재림과는 달리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의 백성이 그들의 주님과 구세주가 돌아오는 것을 보는 그날이 밝아올 때 내면적으로 기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알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거래에 대한 우리의 주요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맥락에 맞춰 설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 우선, 성경의 어떤 예언도, 예언은 그 구절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해석, 그 자신의 해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NIV의 일부 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예언자 자신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ESV는 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누군가의 해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성경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그러나 당신은 그 표현, 그 자체 또는 그의 해석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성경의 기원, 근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의 말씀을 내쉬신다고 말했을 때와 같습니다. 성경의 어떤 예언도 누군가의 해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왜냐하면 예언은 결코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미는 오직 하나이다.

물론 베드로는 이 말을 쓸 때 자신의 의지를 사용했지만, 그는 이 말의 궁극적인 출처가 아니었습니다. 예언은 결코 사람의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으로부터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한 것입니다.

피터는 그의 시대에 많은 말을 했습니다. 피터 부인은 그가 한 모든 말이 신으로부터의 계시가 아니라고 말했을 겁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의 집안 싸움도 포함해서요. 하지만 그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신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는 신으로부터 온 사람으로서 말했습니다.

즉, 사도로서, 사도가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계시를 말했습니다. 인간의 의지에 의해 예언이 산출된 적은 없지만, 성경의 저자는 성령에 의해 이끌려 가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과는 달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훌륭합니다. 성령은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산출하는 성령의 대행을 언급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날이 밝아오고 해가 뜰 때까지 그 인도하는 능력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 예수가 신자들의 마음에 돌아오고 부활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음으로, 무엇보다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따라야 할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경의 어떤 예언도 선지자 자신 의 해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20절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의 대변인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이었고 신이 모세에게 아론에 대해 말씀하셨듯이, 그는 당신의 신이 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대변인입니다.

신은 아론을 통해 모세의 말을 전할 것입니다. 아론은 분명 더 유창했을 겁니다.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신이고 아론은 대변인입니다. 네, 제가 혼동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론, 신은 모세가 당신을 위한 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를 위해 신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언은 결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대신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께로부터 말했습니다. 21절에서 베드로는 이전 구절을 설명합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계시의 근원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말한 말씀의 근원입니다.

이는 그들이 성령에 의해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에 의해 태어나고 이끌렸습니다. 구약의 저자들은 성경을 쓸 때 성령의 도구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적인 면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말합니다. 21절,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인간적인 면이 아니라 신성한 면을 강조합니다. 저자들은 글을 쓸 때, 글을 쓸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했습니다. 21, 그들의 글의 근원은 그들 자신 밖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은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할 때 그들을 움직이십니다. 성령은 저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인간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다양한 스타일과 다양한 강조점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영으로 저자들을 인도하여 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근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사본에 속합니다.

사본은 사본이 아니라 성경 책의 원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통해 사본에 영감을 주시고, 그의 섭리, 그의 주권적 섭리를 통해 그는 그의 말씀을 보존하여 우리의 사본이 매우 훌륭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본문 비평 과학을 통해 우리는 참으로 매우 순수한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적-인간적 특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큰 권위와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것에 기반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방금 말했듯이, 그것은 사도들의 그리스도와와의 경험을 확증합니다. 베드로가 방금 말했듯이, 그것은 예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사는 데 필수적인 지침입니다.

다음 문맥에서 암시적으로, 성경은 또한 거짓 가르침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진실을 속이는 말과 삶을 가진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통렬한 비난입니다. 성경은 삼위일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영으로 인도된 작가들을 통해 아들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적 인물 세 분 모두 성서의 제작에 관여합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신약 계시의 중재자이신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이 우리에게 외치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 을 통해 아들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사실입니다. 그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영으로 인도된 작가들의 대행을 통해 아들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성경의 체계적 신학을 고려합니다. 우선, 성경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감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다양합니다. 어떤 것은 끔찍합니다. 어떤 것은 진실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많은 진실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섯 가지 견해를 제시한 후 우리 자신의 이해를 정리하고 다섯 가지 견해를 평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크렘 드 라 크렘을 취하고 좋은 식사를 제공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스토랑 이미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밀러드 에릭슨이 그의 책에서 제시한 영감에 대한 다섯 가지

견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마 현대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신학입니다. 수많은 복음주의 체계 신학이 뒤따랐지만, 여러 면에서 선구자였습니다.

다른 모든 신학자와 마찬가지로 에릭슨은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능숙하게 다루지만 적극적인 해석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2차 자료에서 역사 신학을 배웁니다. 그의 강점, 그의 강점은 제가 약한 분야, 즉 현대 신학과 철학입니다. 그는 좋은 가이드입니다.

그는 항상 공평하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표하며, 다른 크리스천들을 자신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을 자신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합니다. 그는 그런 면에서 모범입니다.

다섯 가지 이론. 직관 이론, 조명 이론, 역동적 이론, 언어 이론, 받아쓰기 이론. 여기에 에릭슨이 언급하지 않은 두 가지 이론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신정통주의적 관점과 제한된 무오성 관점. 직관 이론, 조명 이론, 역동적 이론, 언어 이론, 받아쓰기 이론, 그리고 신정통주의적 관점과 제한된 또는 부분적 무오성을 추가하겠습니다. 직관 이론은 경전이 종교적 천재들이 행사하는 통찰력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영적 자각이 뛰어납니다. 성경의 영감은 플라톤과 같은 다른 사상가들의 영감과 비슷합니다.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적 천재성을 반영하는 위대한 종교 문학입니다.

계몽 이론은 성령이 성경 저자들의 자연적 능력을 높여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직관 이론은 천재들의 자연적 능력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몽 이론은 그렇게 말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 더 많은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은 성경 저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의 정상적인 능력을 강화합니다. 성령은 모든 신자들 안에서 같은 방식으로 일합니다.

그는 성경 저자들에게 더 큰 정도로 일합니다. 성령은 특별히 진리를 전달하거나 성경 저자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이 글을 쓸 때 영적인 문제에 대한 그들의 민감성을 증가시킵니다.

역동적 이론은 신이 인간 작가들과 협력하여 성경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은 작가들이 원하는 생각이나 개념을 갖도록 인도합니다.

신은 작가들이 자신의 말로 그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허락합니다. 거기에 약간의 오류가 끼어듭니다. 역동적 이론에서 신과 인간 작가는 함께 일합니다.

맞습니다. 성령은 작가들의 사고 과정을 그가 원하는 개념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작가들이 그 생각을 자신의 말로 표현하도록 허락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오류가 없거나 오류가 없는 것이 아니며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인간의 말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어 이론은 하나님, 성령이 저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단어 사용을 인도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제목은 언어 이론입니다. 그 결과, 성경은 하나님이 쓰길 원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이지만, 충분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개선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다음 관점인 받아쓰기 이론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언어 이론에서 하나님은 생각과 말을 적극적으로 인도하지만 인간 작가도 활동적이며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받아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아쓰기 이론은 신이 성경 저자들에게 성경의 바로 그 말씀을 받아쓰기 한다고 주장합니다. 슬프게도, 이것은 여전히 자유주의자들에게 역사적 보수주의 관점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성경의 일부는 구술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이죠. 하지만 세상에, 누가는 그의 복음서의 처음 네 구절에서 예수의 삶에 대해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연구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글들은 구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은 그보다 더 위대했습니다. 그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루칸 스타일로 글을 쓸 수 있도록 허락했고, 바울의 서신과 요한 복음 등과는 다른 스타일로 글을 쓸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받아쓰기 이론은 신이 성경의 말씀을 성경 저자들에게 받아쓰기로 전달한다고 주장합니다.

작가들은 그 과정에서 대체로 수동적이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신성한 측면이다. 인간의 개입은 크게 최소화된다.

이 다섯 가지 견해에 두 가지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신정통주의적 견해는 계시에 대한 보수적 견해와 자유주의적 견해를 모두 비판합니다. 저는 한 지지자인 존 베일리를 그의 책, *The Idea of Revelation in Recent Thought* (1956)에서 떠올립니다.

한 지지자는 계시를 성경적 명제로 규정하고, 신앙을 신에 대한 신뢰가 아닌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의하며, 신이 성경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정통주의를 비난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소 또는 대체로 잘못되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정통주의 관점이 정통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 자리 잡고 싶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정통성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세 가지가 눈에 띄니다. 정통성은 계시를 명제로서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정통성은 신앙을 신에 대한 신뢰가 아닌 그러한 명제들의 수용이라고 정의할 때 오류를 범합니다.

셋째, 그것은 단순히 잘못된 성경의 신적 받아쓰기를 고수합니다. 신적 받아쓰기를 고수하는 근본주의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받아쓰기 이론을 고수하는 복음주의 학자가 쓴 체계학 책이나 신학 책 또는 성경에 관한 책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체로 자유주의자들이 고안한 허구입니다. 사실, 개신교 정교회가 그 언어를 사용하고 받아쓰기를 했을 때, 그들은 계시의 방식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결과의 텍스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입장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루터교와 개혁 정통파 작가들이 사용했을 때 받아쓰기가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오류가 있습니다. 즉, 루터와 칼빈을 따라간 사람들이 그 다음 세기에 사용했습니다. 이제 신정통파는 우리가 방금 말한 세 가지 방식으로 검열하는 정통파와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입장 사이에 자리 잡고 싶어합니다. 같은 지지자인 존 베일리는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성경의 핵심과 껍질을 분리하려고 시도한다는 이유로 자유주의를 검열합니다 .

성경을 비판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그게 요점이 아닙니다. 네, 베일리는 성경이 무오하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정교회는 그것에 대해 말할 때 단어에 너무 집중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받아쓰기 이론의 산물이지만, 자유주의자들은 너무 합리주의적이고 성경을 비판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베일리는 신정통주의 관점의 주요 지지자로서, 계시는 하나님 자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명제가 아니라 그의 강력한 행위, 그의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매우 역사적인 서론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서론에서 호주 신학자 피터 젠슨이 이것이 신정통주의 관점이라고 올바르게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는 하나님 자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에 대한 명제가 아니라 그의 행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적 행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발생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최고 계시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젠슨의 메아리가 또 다시 들립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해석은 신학자의 비판적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계몽주의 이후입니다.

베일리는 우리가 성경을 비판적으로 다룬다고 말합니다. 계시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차용 없이는 계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한된 무오성 .

이 강의를 일곱 번째 관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한된 무오성은 여러분이 추측하셨듯이 완전한 무오성과 대조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완전한 무오성과 제한된 무오성을 구분하는데, 후자는 성경이 신앙과 기독교 생활에 관한 한 무오하지만 무오성으로 간주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역사, 과학 등의 문제에서 진실하고 정확하며 충실합니다 .

일부 제한적 무오설 지지자들은 성경이 무오하지 않지만 무오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 단어를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틀림없이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오, 성경은 무오하지 않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 그것은 무오합니다. 즉, 모든 단어가 어떤 종류의 세부 사항이나 과학적 정확성, 심지어 현대 역사학 방법에 근거한 역사적 정확성으로 사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 일부는 사실이지만, 방금 말했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을 틀림없이 성취한다는 의미에서 무오합니다.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기독교 생활을 가르치는 그의 목적을 틀림없이 성취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과 기독교

생활에서의 성장에 관심이 있는 기독교인인 것 같아 기쁩니다 .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견해를 모든 세부 사항에서 옳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무오설을 채택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무오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의 완전한 진실성을 고수하며, 우리가 영감에 대한 견해를 평가할 다음 강의에서 더 많은 것을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와 성경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16, 특별 계시, 성경, 영감에 대한 일곱 가지 견해입니다.